

왜 사람들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사용하는가? : 성격 및 공감과의 관련성 분석

김환, 한수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Why do people utilize dysfunctional humor styles? :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and empathy

Hwan Kim, Sumi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요약 유머 유형에는 사회적, 자기고양적, 공격적, 자멸적 등의 4 유형이 있는데, 앞의 두 유형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적응에 유리하지만 뒤의 두 유형은 오히려 역기능적이다. 풍부한 유머감각을 왜 역기능적 유머스타일로 발전시키는 것일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유머와 역기능적 유머의 차이를 성격 및 공감과의 관련성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389명의 사이버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머감각, 유머스타일, 성격 5요인, 공감의 자료를 모아 분석했을 때,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는 외향성, 개방성, 정서공감이 정적 영향을 미쳤고,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는 성실성과 인지공감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유쾌하고 외향적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키는 반면, 인내심 및 타인조망의 부족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ere are four types of humor: social, self-enhancing, aggressive, and self-defeating. The first two types are beneficial for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but the latter two types can be considered dysfunctional. Why do people with a sense of humor develop a dysfunctional humor styl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humor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empathy. We conducted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on data from 389 onlin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extraversion, openness, and emotional empathy had a positive effect on functional humor style. Conscientiousness and cognitive empathy had a negative effect on dysfunctional humor sty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mpathetic communication with pleasant and outgoing people would promote a good functional humor style, while a lack of patience and perspective-taking ability would lead to a dysfunctional humor style.

Keywords : Humor, Sense of Humor, Humor Style, Personalit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1. 서론

유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유머가 대인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1], 친한 친구, 배우자, 직장동료 등과 만족스럽게 관계

를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 유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기가 좋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적절한 유머 구사를 통해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융화된다[3,4]. 유머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유머가 대인

*Corresponding Author : Sumi Han(Seoul Cyber Univ.)

email: hsumi@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5,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17,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관계에서 긴장감 완화, 공격적 행동 감소, 친밀감 형성 등을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에 기여함을 많은 연구들이 확인해 주었다[5-7].

Martin, Puhlik-Doris, Larsen, Gray와 Weir는 유머를 사용하는 양식을 유머스타일이라 불렀는데, 유머를 사회적(친화적) 유머, 자기고양적(자기강화적) 유머, 공격적 유머, 자멸적 유머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8]. 각 유머스타일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사회적 유머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머스타일의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농담을 즐기고, 상황을 순간적으로 비트는 재치가 있으며, 보통 비위협적인 사람으로 지각된다[9]. 자기고양적 유머는 스트레스나 삶의 역경에 대한 유머러스한 태도를 의미한다.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의 소유자는 인생에서 이치에 맞지 않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유머스타일은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대처로 이해된다[10]. 반면 공격적 유머는 조롱과 빈정거림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소유자는 타인의 기분이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11]. 자멸적 유머는 타인을 웃기기 위해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멸적 유머스타일의 소유자는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며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이는 자신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면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한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11,12].

그런데 이 스타일 구분에 의하면 모든 유머가 대인관계에 적응적인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사회적 유머스타일이나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Martin 등은 사회적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친밀성을 보고한다고 하였고[8], Kuiper, Martin과 Olinger는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이 긍정정서 회복을 위해 스트레스를 재해석하는 조망수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13]. 반면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역기능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8,12-14]. Kuiper, Grimshaw, Leite와 Kirsh[12]에 의하면,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갈등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부정정서 및 낮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머스타일에 대한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15], 사회적 유머스타일과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실제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졌다. 이 유머스타일들은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대처에 기여한다. 반면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자멸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 유머스타일들은 대인관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에서는 유머스타일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거나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15].

4가지 유머스타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역기능적인 유머스타일 및 역기능적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역기능적 유머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들에게도 분명 유머감각이 있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머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유머스타일과 성격 및 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유머는 비교적 안정된 특질로 이해되며[16], 따라서 성격 특질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면 유머스타일 간 차별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또 유머는 타인 및 상황에 대한 조망을 기반으로 하는데[17], 이는 공감의 하위 요소에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유머와 공감 간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고, 여기서 각 유머스타일 간 차별성이 나타난다면 이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머스타일과 성격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바 있다. 비록 국내 연구는 없지만 해외 연구들에 의하면, 유머스타일과 성격 5요인 간에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의 상관이나 타났다고 한다. 유머스타일을 제창한 Martin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성격 5요인과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유머스타일과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은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Mendiburo-Seguel, Páez와 Martínez-Sánchez가 진행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머스타일은 외향성과는 .42의 강력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개방성과는 .20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18].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외향성과는 .29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과는 -.24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친화성과는 -.33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성실성과는 -.20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멸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신경증과 .23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유머스타일과 성격 5요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있다[19-21].

한편, 공감과 유머는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17]. 유머스타일과 공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는 않고[17], 연구를 시도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성격 변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공감을 연구할 때는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하위 차원을 구별하고 있으며, 공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Davis의 대인관계반응성 지수(IRI: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dex, 이하 IRI)를 사용한다[22]. 유머스타일과 공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한 예를 들면, Hampes[23]의 경우 유머스타일과 Davis[22]의 대인관계반응성 지수(IRI)의 하위차원들 간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고양 유머스타일과 조망수용 차원 간에는 .28의 정적 상관을,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조망수용 간에는 -.40의 부적 상관을, 사회적 유머스타일과 공감적 관심 차원 사이에는 .23의 정적 상관을,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공감적 관심 간에는 -.29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참고로, Hampes의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을 인지공감의 지표로 공감적 관심은 정서공감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나[23], 최근에는 IRI가 정서공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Spreng 등[24]이 개발한 토론토 공감척도(TEQ: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이하 TEQ)를 사용하기도 한다[25].

이상을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유머스타일이 성격 및 공감과의 관련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성격과 유머, 공감과 유머와의 관련성을 각각 살펴본 기존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련 변인으로 성격과 공감을 동시에 살펴보면 각 유머스타일 간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차이점 분석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교 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남자는 136명(35.0%), 여자는 253명(65.0%)이었다. 연령은 20세부터 67세까지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40.72세($SD=10.89$)였다. Table 1에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정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requency	(%)
Gender	Male	136	35.0
	Female	253	65.0
Age	20s	86	22.1
	30s	76	19.5
	40s	139	35.7
	Above 50s	88	22.6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	152
	College graduate	101	26.0
	Bachelor's degree	95	24.4
	Above Master's degree	41	10.5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승인번호: AN01-20210322-HR-001-00).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 S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 게시판을 통해 연구 취지를 밝히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참가자들은 게시판에 첨부된 설문지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연구자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2.3 측정도구

유머스타일

유머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Martin 등[8]이 개발한 유머스타일 척도(Humor Styles Questionnaire, 이하 HSQ)를 사용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총 3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Lee[26]가 번안 및 타당화하면서 2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하위척도로 사회적 유머스타일,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 공격적 유머스타일, 자멸적 유머스타일이 있으며, 5점 척도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유머스타일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를 살펴볼 때, 사회적 유머스타일은 .84,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은 .80, 공격적 유머스타일은 .48,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79로 나타났다. 내적합치도 수치만으로 볼 때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내적합치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신뢰롭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다만 4가지 유머스타일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2가지 유형으로 축약하여 사용했을 때,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사회적+자기고양적)의 내적합치도는 .87,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공격적+자멸적)의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나 2 유형으로 축

약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신뢰로운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머감각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은 유머스타일이지만, 총체적인 의미의 유머감각도 측정할 필요가 있어 Thorson과 Powell[3]이 개발하고 Lee[26]가 변안 및 수정한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이하 MSH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총 24문항이었으나, 국내에서는 Lee[26]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20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머감각 척도는 2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뉘는데, 유머생성(Humor Production)은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유능감을 의미하고, 유머선호도(Humor Appreciation)는 유머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92, 유머생성 소척도는 .94, 유머선호도 소척도는 .77이었다.

성격 5요인

본 연구에서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27]가 개발한 국제 성격 문항집(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이하 IPIP)을 유태용, 이기범, Ashton[28]이 자신들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변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IPIP가 측정한 5 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고,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들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을 높게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신경증이 .89, 외향성이 .88, 친화성이 .83, 성실성이 .81, 개방성이 .78로 나타났다.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84였다.

인지공감

본 연구에서 인지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2]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이하 IRI)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이하 PD)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박성희[29]가 변안하고 정연희[3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Davis는 IRI에서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PT), 상상(fantasy; FT),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EC),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PD)의 4 하위 차원을 설정하였다[22]. 이 중 조망수용(PT)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해보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는 총 28개 문항에 5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각 하위 차원 당 7개의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망수용(PT) 소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1로 나타났다.

정서공감

본 연구에서 정서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Spreng 등[24]이 제작한 토론토 정서공감 척도(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이하 TEQ)를 사용하였다. Spreng 등에 의하면 TEQ는 기존 공감 척도들의 공통요인인 공감적 반응을 측정하여 정서공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척도라 할 수 있다[24]. Kim, Choi와 Han도 정서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TEQ를 사용한 바 있다[25]. TEQ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적 반응이 뛰어난 것으로 채점한다. 국내에서는 김환과 한수미[31]가 변안하고 타당화하였는데, 한국판 TE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로, 그리고 내적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4였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 분석을 위해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 24.0 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변인의 특성 파악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변인 간 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순기능적 유머스타일과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먼저 관심 연구변인들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특성을 아래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을 보여 향후 분석에 적합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ange	Average (S.D.)	Skew	Kurto
SHS	10~40	28.51 (5.11)	-0.09	-0.20
SAHS	7~30	19.64 (4.08)	-0.08	0.31
AHS	5~21	10.39 (2.78)	0.49	0.49
SDHS	8~35	18.71 (5.03)	0.18	0.06
HP	12~60	37.74 (9.03)	0.04	-0.04
HA	12~40	33.30 (4.23)	-0.72	1.19
Neuroticism	11~48	26.94 (6.91)	0.22	-0.33
Extraversion	14~50	32.48 (6.39)	0.24	0.22
Agreeable	14~50	35.88 (5.42)	-0.19	0.60
Conscientious	16~60	36.61 (5.63)	-0.03	0.15
Openness	18~49	33.84 (5.06)	0.11	0.07
Cognitive empathy	14~35	25.83 (3.93)	-0.15	0.09
Emotional empathy	18~64	46.52 (7.80)	-0.38	0.48

Note) HS = Humor style; SHS = Social HS; SAHS = Self-affirmative HS; AHS = Aggressive HS; SDHS = Self-defeating HS; HP = Humor production, HA = Humor appreciation.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중 유머에 관련된 변인들만 모아 상관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머생성 및 유머선호도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유

머스타일은 유머능력 및 유머에 대한 가치 인정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이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 두 변인들을 묶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로 명명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humor variables

	SAHS	AHS	SDHS	HP	HA
SHS	.546**	.031	.205**	.763**	.495**
SAHS		.128 [†]	.233**	.574**	.417**
AHS			.472**	.186**	-.116 [†]
SDHS				.317**	.030
HP					.423**

** $p < .01$

Note) HS = Humor style; SHS = Social HS; SAHS = Self-affirmative HS; AHS = Aggressive HS; SDHS = Self-defeating HS; HP = Humor production, HA = Humor appreciation.

한편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자멸적 유머스타일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머생성과는 낮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유머선호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유머생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유머선호도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두 유머스타일이 유머생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앞의 두 유머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유머능력 또는 유머감각으로 받아들여질 부분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유머스타일의 경우 사용하는 유머에 대한 가치 인정은 부정적 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 두 변인들을 묶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로 명명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humor styles, personality and empathy variables

	DysHS	Neuroticism	Extraversion	Agreeable	Conscientious	Openness	CE	EE
FHS	.217**	-.349**	.534**	.519**	.301**	.496**	.342**	.469**
DysHS		.128 [†]	.063	-.040	-.153**	-.036	-.166**	-.036
Neuroticism			-.320**	-.332**	-.311**	-.163**	-.251**	-.134**
Extraversion				.514**	.358**	.411**	.184**	.320**
Agreeable					.443**	.454**	.503**	.536**
Conscientious						.369**	.288**	.313**
Openness							.346**	.255**
CE								.510**

** $p < .01$

Note) HS = Humor style; FHS = Functional HS; DysHS = Dysfunctional HS; CE = Cognitive empathy; EE = Emotional Empathy

다음으로, 순기능 및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과 본 연구의 다른 관심변인들 간의 상관을 아래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먼저 유머스타일과 성격 5요인 변인들과의 상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신경증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나머지 모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의 경우 신경증 차원과는 정적 상관, 그리고 성실성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유머스타일과 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과 정서공감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 유머의 경우 인지공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정서공감과는 아무런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3.2 유머스타일에 미치는 성격 및 공감의 영향

이번에는 성격과 공감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유머스타일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 5요인 및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이 어떻게 유머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그리고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5.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pathy on Functional Humor Style

Model	SS	df	SS/df	F
	12454.05	7	1779.15	51.87***
$R^2=.488$	13068.46	381	34.30	
	25522.50	388		
Expectants	B	Error	β	t
Neuroticism	-.210	.048	-.179	-4.39***
Extraversion	.324	.058	.255	5.56***
Agreeable	.140	.080	.093	1.75
Conscientious	-.104	.062	-.073	-1.69
Openness	.451	.070	.282	6.41***
Cognitive Empathy	-.024	.097	-.012	-.25
Emotional Empathy	.281	.049	.270	5.76***

*** $p < .001$

먼저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Table 5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R^2=.48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예측변인들 중에서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그리고 외향성, 개방성, 정서공감은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중에서 친화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감에서는 인지공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Table 6을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R^2=.070$ 으로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예측변인들 중에서 외향성은 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실성과 인지공감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중에서 신경증, 친화성, 개방성, 그리고 공감에서는 정서공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6.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pathy on Dysfunctional Humor Style

Model	SS	df	SS/df	F
	1249.18	7	178.45	4.09**
$R^2=.070$	16639.87	381	43.67	
	17889.05	388		
Expectants	B	Error	β	t
Neuroticism	.101	.054	.103	1.87
Extraversion	.152	.066	.143	2.31*
Agreeable	.066	.090	.053	.73
Conscientious	-.195	.070	-.162	-2.78**
Openness	.004	.079	.003	.056
Cognitive Empathy	-.283	.109	-.164	-2.60**
Emotional Empathy	.032	.055	.037	.59

* $p < .05$ ** $p < .01$

4. 논의

본 연구는 유머스타일에도 순기능적인 것이 있는 반면 역기능적인 유머스타일도 존재함에 착안하여, 왜 유머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사용하는지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성격 및 공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보니 각 유머스타일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성격의 경우,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해 외향성과 개방성은 정적 영향을, 그리고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해 외향성은 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실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과의 관련성에서 차이는 더 극적이었는데,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해서는 정서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반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대해서는 인지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4가지 유머스타일 점수가 유머감각 척도와 상관을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유머생성 소척도와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4가지 유머스타일이 유머를 생성하는 능력 또는 유머감각을 반영한다는 것이며 Martin 등[8]이 주장한 4가지 유머스타일의 존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4가지 유머스타일은 유머선호도 측면에서 차이가 컸다. 먼저 사회적 유머스타일과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은 유머선호도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유머에 대하여 유머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유머선호도와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공격적 유머스타일의 경우에는 유머스타일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공격적 유머스타일이 유머선호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과연 이런 유머스타일을 유머감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타인의 반응이나 상처받음에 신경쓰지 않는 유머스타일을 응답자들은 유머감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멸적 유머의 경우 유머선호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이 유머스타일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유머에 대한 가치와 존중에 개인차가 큰 것으로 보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머스타일을 2가지 유형으로 축약해서 살펴보았는데, 실제 상관분석 결과는 4가지 유머스타일을 2가지로 축약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Martin 등[8]이 4가지 유머스타일을 제시한 이후,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2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일일이 언급하기에 어려울 정도이다. 유머스타일을 다룬 24개 연구에 대해 대규모 메타분석을 시도한 Plessen 등은 4가지 유머스타일을 건강증진 유머스타일(health-promoting humor styles)과 건강위협 유머스타일(health-endangering humor styles)의 2 스타일로 축약하여 구별하였는데[19], 여기서는 건강증진 유머스타일에는 사회적 유형과 자기고양적 유형이 그리고 건강위협 유머스타일에는 공격적 유형과 자멸적 유형이 속해있다. 이밖에도 Vrabl, Ziegler-Hill과 Shango는 4가지 유머스타일을 무해한(benign) 유머스타일과 유해한(injurious) 유머스타일로 구별하였으며[32], Can, Stilwell과 Taku, Kuiper와 Leite 및 Ford,

Lappi와 Holden은 긍정적(positive) 유형과 부정적(negative) 유형으로[33-35], Dozois, Martin과 Bieling은 적응적(adaptive) 유형과 부적응적(maladaptive) 유형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36].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유머스타일과 자기고양적 유머스타일을 긍정적 유형으로 그리고 공격적 유머스타일과 자멸적 유머스타일은 부정적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셋째, 성격 5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할 때, 먼저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 맥락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을 시도했을 때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성격 5요인 모두와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감 변인들과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향성과 개방성은 정적 영향력, 그리고 신경증은 부적 영향력이었다. 이는 기존 Mendiburo-Seguel 등[18]의 메타분석 연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의 경우에는 성격 5요인 중 신경증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 역시 Mendiburo-Seguel 등[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성격 차원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외향성 차원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쾌하고 밝은 정서가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개방성 차원의 경우에도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창조성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유연성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신경증 차원의 경우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부정적인 정서나 기분 상태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 짜증, 분노,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실성 차원의 경우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고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사려깊지 못하거나 부족한 자기조절력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머를 발휘하고자 할 때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키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친화성 차원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두 유머스타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회귀분석에서 친화성과 유사한 공감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친화성 차원의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공감과의 상관 패턴 및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 및 정서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TEQ로 측정된 정서공감과의 상관이 좀 더 높았다. 반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과만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회귀분석 결과까지 종합해 보았을 때, 확실히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정서공감과 관련성이 더 높고,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인의 감정에 풍부하게 반응하는 정서공감은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입장에 무신경한 부족한 인지공감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이 인지공감과만 관련성을 보이고 정서공감과는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 결과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Hampers에 의하면, 공격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 뿐만 아니라 정서공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23]. Nazir와 Rafique의 연구에서도 이 결과는 마찬가지였다[37].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정서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정서공감 척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ampers나 Nazir와 Rafique는 Davis[22]의 IRI 중 공감적 관심(EC) 소척도로 정서공감을 측정하였는데[23,37], 본 연구에서는 Spreng 등[24]의 TEQ로 정서공감을 측정하였다. TEQ는 IRI의 공감적 관심 소척도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정서공감에 가까우며[24], IRI의 공감적 관심 소척도는 국내판의 경우 내적합치도가 .5에서 .6 정도로 비교적 낮다는 한계가 있다[30,38]. 따라서 어떤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순 있겠지만, 본 연구 결과로만 한정한다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정서공감보다는 인지공감의 부족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할 때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이 더 촉진되는 것 같다. 참고로 IRI의 공감적 관심 소척도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또 다른 정서공감척도[39]를 사용한 Halfpenny와 James의 연구에서도 공격적 유머스타일은 인지공감과만 부적 상관을 보인 바 있다[17].

다섯째, 본 연구 회귀분석에서 성격과 공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순기능적 유머스타일과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반면($R^2=.488$)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R^2=.070$). 따라서 적어도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을 예측할 때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성격과

공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정 애착, 특성 분노, 높은 자의식 등 다양한 변인들을 모형에 투입해볼 수 있겠으나, 먼저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확실히 Martin 등이 주장한 것처럼 4가지 유머스타일이 존재하며[8], 4가지 유머스타일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순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의 2가지 유형으로 축약하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순기능적 유머스타일과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은 성격의 5요인 및 공감 차원에서 서로를 구별해주는 차이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들에서도 2가지 유형으로 축약하여 연구하는 것이 복잡성을 줄이고 연구 결과를 명료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학문적 시사점을 일상생활로 확장시켜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각 유머스타일을 발달 및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와 창의성 및 정서공감은 유머스타일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조절력과 인지공감은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유전성 및 유쾌하고 허용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대인관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쾌하고 외향적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어울리는 것이 순기능적 유머스타일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내와 끈기를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나 타인의 입장에 무관심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는 그러한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다면 역기능적 유머스타일이 발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표본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한 곳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에는 지역사회 샘플을 더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반복검증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M. Lefcourt. *Humor : The psychology of living buoyantly*, New York :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DOI: <http://dx.doi.org/10.1007/978-1-4615-4287-2>
- [2] M. N. Shiota, B. Campos, D. Keltner, & M. J. Hertenstein, M. J. "Positive emo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 Philippot & R. S. Feldman (Eds.), *The regulation of*

- emotion* (pp.127-15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 [3] J. A. Thorson, & F. C. Powell. "Sense of humor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6), pp.799-809, 1993.
DOI: [http://dx.doi.org/10.1002/1097-4679\(199311\)49:6<799::aid-iclp2270490607>3.0.co;2-p](http://dx.doi.org/10.1002/1097-4679(199311)49:6<799::aid-iclp2270490607>3.0.co;2-p)
- [4] J. Lyttle. "The judicious use and management of humor in the workplace", *Business Horizons*, 50(3), pp.239-245, 2007.
DOI: <https://doi.org/10.1016/j.bushor.2006.11.001>
- [5] J. Yoon, & N. W. Chung. "Relationships among Optimism,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Counselor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pp.49-68, 2009.
- [6] Y. S. Cheon. "Understanding of Humor in Christian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4, pp.197-217, 2007.
- [7] Y. Hur. "Humor Sense and Humor Style of Pre-service Teacher and Change of Teache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2), pp.19-49, 2010.
- [8] R. A. Martin, P. Puhlik-Doris, G. Larsen, J. Gray, & K. Weir. "Individual differences of uses of humor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the humor styl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1), pp.48-75,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092-6566\(02\)00534-2](http://dx.doi.org/10.1016/S0092-6566(02)00534-2)
- [9] G. E. Vaillant. "Adaptation to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10] R. A. Martin. "The Situational Humor Response Questionnaire (SHRQ) and Coping Humor Scale (CHS) : A Decade of Research Findings",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9, pp.251-272, 1996.
- [11] N. A. Kuiper, M. Grimshaw, C. Leite, & G. Kirsh.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7, pp.135-168, 2004.
DOI: <https://doi.org/10.1515/humr.2004.002>
- [12] L. S. Kubie. "The destructive potential of humor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7), pp.861-866, 2006.
DOI: <https://doi.org/10.1176/ajp.127.7.861>
- [13] N. A. Kuiper, R. A. Martin, & L. J. Olinger. "Coping humour, stress, and cognitive appraisal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5(1), pp.81-96, 1993.
DOI: <http://dx.doi.org/10.1037/h0078791>
- [14] R. A. Martin. "The psychology of humor: An integrative approach", Elsevier Academic Press, 2010.
- [15] M. Schneider, M., Voracek, & U. S. Tran. "A jok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Meta-analytical evide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s of habitual humor styles with mental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9(3), pp.289-300, 2018.
DOI: <https://doi.org/10.1111/siop.12432>
- [16] W. Ruch. "The sense of humor: Explorations of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Walter de Gruyter & Co, 1998.
- [17] C. C. Halfpenny, & L. A. James. "Humor styles and empathy in junior-school children",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6(1), pp.148-166, 2020.
DOI: <https://doi.org/10.5964/ejop.v16i1.1934>
- [18] A. Mendiburo-Seguel, D. Páez, & F. Martínez-Sánchez. "Humor styles and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humor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candinavian Journal Psychology*, 56(3), pp.335-340, 2015.
DOI: <https://doi.org/10.1111/siop.12209>
- [19] C. Y. Plessen, F. R. Franken, C. Ster, R. R. Schmid, C. Wolfmay, A. Mayer, M. Sobisch, M. Kathofer, K. Rattner, E. Kotlyar, R. J. Maierwieser, & U. S. Tran. "Humor styles and personal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humor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4, pp.109676, 202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9.109676>
- [20] V. Saroglou, & C. Scariot. "Humor Styles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educational correlates in Belgi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1), pp.43-54, 2002.
DOI: <https://doi.org/10.1002/per.430>
- [21] J. A. Schermer, R. A. Martin, N. G. Martin, M. Lynskey, & P. A. Vernon. "The general factor of personality and humor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8), pp.890-893, 2013.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2.12.026>
- [22]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pp.113-126,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4.1.113>
- [23] P. Hampes. "The relation between humor styles and empathy",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6(3), pp.34-45, 2010.
DOI: <https://doi.org/10.5964/ejop.v6i3.207>
- [24] R. N. Spreng, M. C. McKinnon, R. A. Mar, & B. Levine. "The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factor-analytic solution to multiple empath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 pp.62-71,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484381>
- [25] H. Kim, H. Choi, & S. Han. "The effect of sense of humor and empathy on the interpersonal adap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7, pp.111791, 2022.
DOI: <https://doi.org/10.1016/j.paid.2022.111791>
- [26] J. S. Lee.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Doctor's

Thesis, Myungji University, 2005.

- [27] L. R.. Goldberg.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pp.7-28, 1999.
- [28] T. Y. You, K. B. Lee, & M. C. Asht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3), pp.61-75, 2004.
- [29] S. H. Park. "Empathy, Empathic Comprehension", Wonmisa, Seoul, 1994.
- [30] Y. H. Jung. *Counselor's empathy and perceived cultural similarity: effects on impression-formation about client*.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2.
- [31] H. Kim, & S. Han. "A validation study of Toronto Empathy Questionnaire - 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pp.809-821, 2016.
- [32] J. K. Vrabel, V. Ziegler-Hill, & R. G. Shango. "Spitefulness and humor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15), pp.238-243, 2017.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6.10.001>
- [33] A. Cann, K. Stilwell, & K. Taku. "Humor styles, positive personality and health",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3, pp.213-235, 2010. DOI: <http://dx.doi.org/10.5964/eiop.v6i3.214>
- [34] N. A. Kuiper, & C. Leite. "Personality impressions associated with four distinct humor sty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1, pp.115-122,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7-9450.2009.00734.x>
- [35] T. E. Ford, S. K. Lappi, & C. J. Holden. "Personality, Humor Styles and Happiness: Happy People Have Positive Humor Style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2(3), pp.320-337, 2016. DOI: <https://doi.org/10.5964/eiop.v12i3.1160>
- [36] D. J. Dozois, R. A. Martin, & P. J. Bieling.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adaptive/maladaptive styles of hum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6), pp.585-596,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608-008-9223-9>
- [37] M. Nazir, & R. Rafique. "Empathy, Styles of Humor and Soci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Pakista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1), pp.47-54, 2019.
- [38] H. Kim, & S. Han. "Comparison among Perspective Taking, Personal Distress, Empathic Concern, Empathic Responding and Empathic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Relatedness with Big 5 Personali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8(2), pp.55-73, 2017.
- [39] C. Zoll, & S. Enz. "A questionnaire to assess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15, pp.165-174, 2005.

김 환(Hwan Kim)

[정회원]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원 (문학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원 (심리학박사)
- 2010년 5월 ~ 현재 : 서울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정신건강

한 수 미 (Sumi Han)

[정회원]



- 1995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석사)
- 2007년 12월 : 미국 네바다 주리 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박사)
- 2008년 7월 ~ 현재 : 서울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상담, 사이버상담